

조나단 에드워즈의 개혁파 양립주의 : 필연과 우연에 대한 에드워즈의 견해

김찬영

(대신대학교, 조교수, 조직신학)

- I. 들어가는 말
- II. 필연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해
- III. 우연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해
- IV. 개혁파 양립주의자 에드워즈

[초록]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의 탁월한 철학자며 신학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뉴잉글랜드의 최고 개혁파 목회자로 흔히 간주된다. 그러나 에드워즈 학계에서 의지의 자유에 대한 그의 견해가 고전적 개혁주의 교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분명 다른 소리들이 있다. 비록 에드워즈가 의지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공통적인 칼빈주의 교리로 간주했지만 말이다. 의지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해를 표준적 칼빈주의로 간주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어떤 연구들은 의지의 자유에 대한 에드워즈의 개념이 일종의 철학적 결정론이며 오랜 개혁주의 전통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주장한다. 후자의 주장은 필연과 우연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해가 고전적 개혁주의에서 달라졌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본고는 에드워즈와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 프란시스 투레틴의 필연과 우연에 대한 그들의 용법과 견해를 비교한다. 비록 에드워즈가 “필연”과 “우연”의 용어를 투레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에드워즈는 필연성의 종류를 구별하되, 특히나 자연적 필연성과 도덕적 필연성을 구별한다. 뿐만 아니라, 투레틴과 에드워즈 둘 다 (모종의 신학적 결정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신적 예지와 작정과 양립할 수 없는 절대적 우연을 확실히 부정한다. 둘 다 신적 의지와 지식으로 말고는 의지의 자유를 포함해서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완전히 동의한다. 에드워즈의 견해는 투레틴의 견해만큼이나 개혁파 양립주의로 일컬어질 수 있다.

키워드: 조나단 에드워즈, 프란시스 투레틴, 의지의 자유, 필연, 우연, 양립주의

논문투고일 2022.12.12. / 심사완료일 2023.02.21. / 게재확정일 2023.03.02.

I. 들어가는 말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신학자”로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¹ 뉴잉글랜드의 가장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로 흔히 평가된다.² 세계적인 칼빈주의자인 벤저민 워필드(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1851-1921)는 에드워즈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볼 때 “‘표준적인’ 칼빈주의”로 평가하고,³ 의지의 자유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론을 내용에 있어서 진정한 개혁주의 교리로 간주한다.⁴ 에드워즈 스스로도 의지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칼빈주의자들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견해”로 간주한다.⁵ 그러나 의지의 자유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론이 고전적인 개혁주의를 대변하느냐에 대해서 이견(異見)이 존재한다. 물론 근래까지의 평가 경향은 에드워즈의 이론을 의지의 자유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가르침의 표준적인 옹호로서 여기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⁶ 사실 그의 견해는 시간이 지나서뿐만 아니라 에드워즈 당대에도 고전적인 개혁주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는 의혹제기가 없지

* 본 논문은 저자가 2021년 10월 28일, 대신대학교 종교개혁기념 학술제에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1 Paul Ramsey, “편집자 서문,”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 *Freedom of the Will*, 김찬영 옮김, 『의지의 자유』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16.
- 2 Philip John Fisk, *Jonathan Edwards’s Turn from the Classic-Reformed Tradition of Freedom of the Will*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6), 23.
- 3 Benjamin B. Warfield, *Studies in The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2; reprint, 2003), 530.
- 4 Warfield, *Studies in Theology*, 531: “에드워즈의 독창성은.....그의 사상의 내용에 있기보다 그의 사유방식에 있다.” Cf. John Frame, *Systematic Theology*, 김진운 옮김,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844n25: “자유지론에 대한 고전적 칼빈주의의 반박은 Jonathan Edwards, *Freedom of the Will*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3)이다”(강조는 첨가한 것).
- 5 Edwards, 『의지의 자유』, 206. Edwards, 『의지의 자유』, 204: “내가 칼빈에 기댄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고.....칼빈이 믿고 가르친 교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교리들을 믿는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칼빈이 가르친 대로 전부 다 믿는다는 비판도 정당할 수 없지만.....내가 칼빈주의자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Cf. Edwards, 『의지의 자유』, 324, 500, 594, 610-11, 618.
- 6 Richard A. Muller, “Jonathan Edwards and the Absence of Free Choice: A Parting of Ways in the Reformed Tradition,” *Jonathan Edwards Studies* 1, no. 1 (2011), 3.

않았다.⁷ 그리고 오히려 근래에는 양자의 불연속성에 대한 강조가 뚜렷해 보인다.⁸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의지의 자유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론이 우연성을 부정하는 그런 필연성을 말하는 일종의 철학적 결정론으로서 결국 개혁파 정통주의와 결을 달리한다고 주장한다.⁹ 이런 주장에는 필연과 우연에 대한 개혁파의 전통적 용법의 타당한 범위를 정하고, 에드워즈의 언어와 이해가 개혁파의 전통적인 용법과 다르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은 우연과 필연에 대한 개혁파의 이해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되는¹⁰ 대표적인 개혁파 정통주의자 프란시스 투레틴(Francis Turretin, 1623-1687)의 용법을 필연과 우연에 대한 에드워즈의 실제 언어 사용과 비교함으로써,¹¹ 개혁파의 고전적 이해

7 Richard A. Muller, "Jonathan Edwards and Francis Turretin on Necessity, Contingency, and Freedom of Will: in Response to Paul Helm," *Jonathan Edwards Studies* 4, no. 3 (2014), 267.

8 의지의 자유에 대한 에드워즈의 글과 사상의 수용, 반응, 그리고 최근 연구들에 대해서는, Fisk, *Jonathan Edwards's Turn*, 28-44를 보라.

9 필립 피스크의 상세한 연구(Fisk, *Jonathan Edwards's Turn*)를 포함해서, Muller, "Jonathan Edwards and the Absence of Free Choice," 3-22; Muller, "Jonathan Edwards and Francis Turretin," 266-85; Richard A. Muller, *Divine Will and Human Choice: Freedom, Contingency, and Necessity in Early Modern Reformed Thought* (Grand Rapids, Mich.: Baker, 2017), 29-30; Richard A. Muller, *Grace and Freedom: William Perkins and the Early Modern Reformed Understanding of Free Choice and Divine Gr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3-4; Richard A. Muller, "Contingency, Necessity, and Certainty in Jonathan Edwards' Freedom of Will," in *Providence, Freedom, and the Will in Early Modern Reformed Theology*(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22), 251-75; John V.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신윤수 옮김, 『역사적, 신학적 맥락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118-34를 보라.

이와 대조적인 주장으로는 다음 연구들을 주목할 만하다. Paul Helm, "Jonathan Edwards and the Parting of Ways," *Jonathan Edwards Studies* 4, no. 1 (2014), 42-60; Paul Helm, "Turretin and Edwards Once More," *Jonathan Edwards Studies* 4, no. 3 (2014), 286-96; Paul Helm, "Francis Turretin and Jonathan Edwards: Theologians of the Same Niche," in *Reforming Free Will: a Conversation on the History of Reformed Views on Compatibilism(1500-1800)* (Great Britain: Mentor, 2020).

10 여기서 필연과 우연에 대한 칼빈 vs. 칼빈주의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필연과 우연에 대한 칼빈의 용법과 이해에 대해서는, 김찬영, "우연과 필연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이해 비교", 『조직신학 연구』 34 (2020), 44-70을 보라. 이 주제를 위해서는 또 다른 논문이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우연과 필연의 이해에 있어서 양자의 실질적인 연속성을 발견한다.

와 에드워즈의 이해를 양립주의로 공통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우연과 필연에 대한 개혁파의 이해 범위의 가능한 확장의 모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필연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해

필연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해는 자유에 대한 그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¹² 에드워즈의 단순한 정의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이해되고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의미의 자유는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행할 능력이나 기회 또는 조건을 갖는 것”이다.¹³ 그의 『의지의 자유』에서¹⁴ 이런 자연스럽게 통상적인 의미의 자유와 구별되고,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성과도 완전히 충돌하는 “의지의 자유에 대한 근래 유행하는 관념”은 “아르미니우스주의 교리”라고 총칭된다.¹⁵

11 권경철,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대한 프랑수아 투레티니(1623-1687)의 견해: 투레티니와 레이데커의 견해에 나타난 양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26 (2020), 145: 그는 “개혁파 정통주의 혹은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17세기 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12 Edwards, 『의지의 자유』, 228-29: “원래 적절한 의미로는, 가정될 수 있는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 또는 존재하고 말 것이 바로 필연적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필연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Cf.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493-94: “어떤 것이 달리 존재할 수 없을 때.....필연적이라고 말한다.”

13 Edwards, 『의지의 자유』, 247. Edwards, 『의지의 자유』, 248: “자신이 의지를 갖는 대로 또는 자신의 선택대로 행하거나 처신하는 능력과 기회가 자유라는 말이 의미하는 전부”이다; Edwards, 『의지의 자유』, 249: “만약 이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를 추구하고 행할 힘이 있고, 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추구하고 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자유의 본래적이고 통상적인 개념에 따르면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자유롭다.” Cf. Frame,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844: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유를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이런 종류의 자유를 때때로 양립가능론(compatibilism)으로 부른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자유는 결정론과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에드워즈의 『의지의 자유』의 완전한 제목은 “도덕적 행위, 미덕과 악덕, 상과 벌, 칭찬과 비난에 필수적이라고 가정되는 의지의 자유에 대한 근래 유행하는 관념에 관한 주의 깊고 철저한 연구”이다. “연구”는 에드워즈가 『의지의 자유』를 지칭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한 약어였다(Ramsey, “편집자 서문,” 21n2).

15 Edwards, 『의지의 자유』, 205: “내가 이 책에서 반박하는 자유의지.....에 관한 가르침을 아르미니우스주의 교리로 일반적으로 지칭할지라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 교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언급한 모든 신학자나 저자들을.....진정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로 내가 주장한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의지의 자유 개념을 견지하는 모든 이들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로 몰아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교리의 실제.....귀결을 눈치 채지

에드워즈는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자유의지 개념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의지의 절대적 우연성으로 본다.¹⁶ 그리고 절대적 우연성은 모든 필연성을 배제하는 우연성이다.¹⁷

에드워즈는 모든 필연성을 배제하는 우연성은 참된 인과관계 개념과 모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¹⁸ 따라서 전적으로 우연한 의지 작용은 있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어떤 필연성도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해 결과와 연결의 필연성도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연적인 의지의 행위들은 하나도 없음에 명백하다.”¹⁹ 에드워즈에 따르면, 칼빈주의적인 의지의 자유는 강제와는 충돌할지라도, “결과와 연결의 필연성”과 일치한다.²⁰ 전통적인 개혁주의도 모든 필연성이 자유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와 일치하는 필연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긍정해왔다.²¹ 개혁파 정통주의자 투레틴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필연성이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교리를 견지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6 Edwards, 『의지의 자유』, 315: “의지작용 또는 의지의 행위가 우연적인 사건(강제뿐만 아니라 모든 필연과도 반대된다고 이해되는 그런 우연)이라는 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의지의 자유에 대한 논의에서 인간의 자유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특히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를 상세히 검토해볼 것이다. 1. 아무런 강제의 필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의 필연성(necessity of consequence)**도 없이, 즉 선행하는 것과의 틀림없는 연결(an infallible connection)도 없이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우연적인 의지작용 같은 것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의지의 자유 개념에 본질적인 나머지 둘은, 의지의 결정이 의지 자체 말고는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의지의 자기결정력”과 의지의 자기결정에 선행하는 중립성 또는 무차별성(indifference)이다(Edwards, 『의지의 자유』, 249). Cf. R. K. McGregor Wright, *No Place for Sovereignt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6), 43-44, in Frame,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845-46에서 재인용: “자유에 대한 인간의 의지가 대안 사이에서 동일하게 쉽게 선택할 내재적 힘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정반대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또는 ‘중립의 자유’로 부른다.…… 궁극적으로 의지는 어떤 필연적인 인과관계에서 자유롭다. 즉 의지는 외부적인 결정에서 자율적이다.”

17 Edwards, 『의지의 자유』, 249: “.....우연성은 이 자유의 또 다른 특성으로, 이 자유에 본질적이다. 그런데 이 우연성은.....모든 필연성에 반대되는 우연성, 즉 선행하는 근거 또는 이유와 고정적이고 일정하게 연결되는 그 어떤 연결과도 반대되는 우연성이다.”

18 Edwards, 『의지의 자유』, 316-19.

19 Edwards, 『의지의 자유』, 320.

20 Edwards, 『의지의 자유』, 381: “연결이나 결과의 필연성은 사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 누리는 어떤 자유와도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21 John Calvin, *The Bondage and Liberation of the Will: A Defence of the Orthodox Doctrine of Human Choice against Pighius*, ed. A. N. S. Lane, trans. G. I. Davies (Grand Rapids: Baker, 1996), 149: 자유와 필연적인 것이 “때때로 일치할 수 있다.” 칼빈의

자유와 다투거나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외재적 필연성 중에는 자유를 파괴하는 것도 있고 자유와 부합하는 것도 있다. 내재적 필연성 중에도 자유를 분쇄하는 것이 있고 완성시키는 것이 있다.”²² 에드워즈가 자유와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필연성은 고전적인 개혁주의가 자유와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필연성과 내용상 일치하는가?

1. 결과와 연결의 필연성(a necessity of consequence and connection)

에드워즈의 결과와 연결의 필연성은 철학적 필연성의 일종이다. 철학적 필연성은 “어떤 것을 참되다고 긍정하는 명제의 주어가 가리키는 것과 명제의 술어 사이의 완전하고 고정적인 연결”로 정의된다.²³ 명제의 주어와 술어가 완전하고 고정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명제의 진리값(truth-value)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이런 철학적 필연성이 성립하는 방식은 세 가지다. 첫째, 명제가 긍정하는 어떤 것의 존재가 그 자체로 필연적이어서 그것을 긍정하는 명제의 주어와 술어가 조건 없이 연결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이 모순인 경우이다. 이를테면, “보편적 존재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필연적이다.”²⁴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는 그 반대가 모순인 이런 필연성을 절대적 필연

필연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김찬영, “우연과 필연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이해 비교”, 60-65를 보라. Cf. 김재용, “우연과 필연에 대한 칼빈의 인식”, 『개신과 부흥』 30 (2022), 125-56.

칼빈 이후 잉글랜드의 탁월한 개혁신학자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도 의지의 자유가 모든 필연성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성호, “죄의 허용(permission)과 하나님의 의지(will)에 대한 윌리엄 퍼킨스의 개혁신학적 변증”, 『개신과 부흥』 25 (2020), 260: “퍼킨스는 필연성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절대적 필연성, 폭력에 의한 필연성, 결과적 혹은 불모적(infallible) 필연성. 이 중에서 두 번째가 의지의 자유를 파괴”시킨다.

22 Francis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tr. George Musgrave Giger, ed. James T. Dennison, Jr. (Phillipsburg, NJ: P & R., 1992-1997), 8.1.5=박문재 한병수 옮김, 『변증신학 강요』 vol. 1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850-51. 권경철,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충에 대한 프랑수아 투레티니(1623-1687)의 견해”, 145: 그의 주저 『변증신학 강요』는 17세기 개혁파 신학이 “전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백과사전 같은” 안내서이다.

23 Edwards, 『의지의 자유』, 233.

24 Edwards, 『의지의 자유』, 233-34: “왜냐하면 보편적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없음(nothing)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모순일 것이기 때문이

(*necessitas absoluta*)이라고 일컬었다.²⁵ 둘째, 에드워즈에 따르면, 명제가 긍정하는 어떤 것의 존재가 이미 확실해진 경우, 그것을 긍정하는 명제의 주어와 술어의 연결은 틀림없다. 다시 말해서, “이미 발생한 것은 무엇이든 그것의 존재는 지금 어찌할 수 없”고, “달리 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이 된다.”²⁶ 전통적으로 이것은, 발생한 사건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달리 될 수 없는 필연성, 다시 말해, 과거의 불가역적 성격을 포착하는 “사건적 필연성(*necessitas per accidens*)”과 유사하다.²⁷ 철학적 필연성이 성립할 수 있는 세 번째 경우는, 필연적인 것들과 앞의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확실하게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필연적인 경우이다.²⁸ 에드워즈에 따르면, “어떤 것의 존재가 이미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것과 떼려야 뗄 수 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연결된다면, 그것의 존재는 필연적이라는 것은 실로 명백하다.”²⁹ 에드워즈는 이런 필연성을 “결과의 필연성(a necessity of consequence)”,³⁰ “결과와 연결의 필연성(a necessity of consequence and connection)”,³¹ “연결과 결과의 필연성(necessity of connection and consequence)”³² 으로 일컫는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뿐만 아니라, $2+2=4$ 같은 수학적 진리나 심지어 황금률조차 무조건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말한다(Edwards, 『의지의 자유』, 234).

- 25 절대적 필연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는, Richard A.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Drawn Principally from Protestant Scholastic Theology*, 2nd ed. (Grand Rapids: Baker, 2017), 243을 보라.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46: “.....절대적 필연성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다 등등과 같이 그 자체로 본질적이고 무조건적인 필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494: 절대적 필연성과 “반대로 행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불가능하다.” 절대적 필연의 전통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찬영, “우연과 필연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이해 비교,” 54-55를 보라.
- 26 Edwards, 『의지의 자유』, 234. Edwards, 『의지의 자유』, 374-75: “그것들[과거인 것들]의 과거 존재는 현재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과거 존재는 이미 확실해져서, 이 점에서 일말의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는 이미 너무 늦.....다.”
- 27 “사건의 필연성”(necessity of the event)에 대해서 투레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982: “존재하는 것은 존재할 때에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이 자유롭거나 우연한 원인에 의거해서 행해지는 것보다 덜 자유롭거나 덜 우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Cf.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246.
- 28 Edwards, 『의지의 자유』, 234-35.
- 29 Edwards, 『의지의 자유』, 374.
- 30 Edwards, 『의지의 자유』, 235, 315, 351.
- 31 Edwards, 『의지의 자유』, 320.

의지의 자유로운 행위는 이런 필연성을 통해서 필연적이다.³³

에드워즈의 “결과의 필연성(a necessity of consequence)”은 그 자체로는 달리 될 수 있지만, 불변한 하나님의 작정과 무오한 하나님의 예지를 통해서 달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설적 필연성을³⁴ 가리키는 전통적 용어인 *necessitas consequentiae*(necessity of the consequence)와³⁵ 자구(字句)에 있어서 흡사하다. 리처드 멀러(Richard A. Muller)는 에드워즈의 “결과와 연결의 필연성”은 전통적인 논리적 필연성과 일치하지 않고, 에드워즈가 사실상 참된 우연성을 의미하는 *necessitas consequentiae*(NC)와 필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달리 되지 않고 고정되는 필연성인 *necessitas consequentis*(NT=necessity of the consequent)의 전통적인 구별을 오해하고 양자를 혼동했다고 평가한다.³⁶ 하지만 에드워즈도 선행하는 필연적인 것과 틀림없이 연결되어 “결과와 연결의 필연성”을 갖는 뒤따르는 것(the consequent)이 그 자체로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³⁷

전통적으로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지와 달리 되는 일이 없다는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일차적 원인의 관점에서 모든 것의 “가설적 필연성”(hypothetical necessity)을 긍정한다.³⁸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32 Edwards, 『의지의 자유』, 351, 381. Cf. Edwards, 『의지의 자유』, 375: “연결 또는 결과의 필연성(a necessity of connection or consequence).”

33 Edwards, 『의지의 자유』, 235: “그러므로.....시작이 있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했거나 장차 필연적으로 발생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이것[결과의 필연성]은 의지의 행위에 대한 논의와 특히 관계가 있는 필연성이다.”

34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494.

35 이 라틴어는 문자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함의의 필연성이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가설적 필연성, 조건적 필연성, 결과의 필연성, 그리고 상대적 필연성 등으로 다양한 번역이 제안될 수 있다. 이 용어의 여러 가지 실제 번역에 대해서는, 김찬영, “우연과 필연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이해 비교,” 52n32를 보라.

36 Muller, “Jonathan Edwards and Francis Turretin,” 273. Muller의 이 논문에는 “a necessity of the consequent of the consequent thing (*necessitas consequentiae*)”라고 되어 있지만, ()안의 라틴어는 *necessitas consequentis*가 적절하다. 이후부터는 *necessitas consequentiae*는 NC로 *necessitas consequentis* NT의 약어로 표기하겠다. NC와 NT에 대한 용어설명으로는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244-45를 보라.

37 Edwards, 『의지의 자유』, 235: “필연적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 미래적인 것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는 필연적이지 않다”(강조는 첨가한 것).

일어날 수밖에 없다.”³⁹ 그러나 사태의 이차적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차적 원인이 이성적 판단을 하는 지성적 존재이나 아니면 자연법칙이나 단순히 본성을 따르는 존재이나의 차이를 고려해서 필연성의 유형을 구별해왔다. 비록 에드워즈가 전통적인 구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⁴⁰ 에드워즈도 원인의 성격에 따라서 도덕적 필연성과 자연적 필연성으로 구별한다.

2. 도덕적 필연성과 자연적 필연성(natural necessity)

에드워즈에 따르면, 지성적 존재들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필연성은 도덕적 필연성과 자연적 필연성(또는 본성적 필연성)으로 구별될 수 있다.⁴¹ 도덕적 필연성은 의지나 행위의 동기나⁴² 경향 같은 “도덕적 원인에서 생기는” 필연성으로서, 도덕적 원인과 의지 사이의 틀림없는 연결을 의미한다.⁴³ 반면 자연적 필연성은 의지의 선택 없이, 자연적 원인과 본성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성이다. 이를테면, “사람은 몸에 상처를 입을 때 아픔을 느끼고.....사람의 몸은 지탱하는 것이 없을 때 아래쪽으로 움직인다.”⁴⁴ 전통적으로 자연적 필연성(본성적 필연성 또는 본성의 필연성)은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의 본질적 성격에 내재하는 필연성을 가리키고, 도덕적 필연성은 어떤 지성적 존재의 도덕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행위 유형이 달리 되지 않고 반드시 선하게 아니면 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⁴⁵

38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494: 가설적 필연성은 “신적 작정을 가정했을 때 생겨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결과 자체를 작정했을 때 그 일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39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495.

40 Cf. Helm, “Turretin and Edwards Once More,” 292: 헬름은 에드워즈가 NC와 NT의 전통적인 구별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평가한다.

41 Edwards, 『의지의 자유』, 238.

42 Edwards, 『의지의 자유』, 218: “내가 말하는 ‘동기’는, 하나의 개별적인 것이든지 많은 것이 결합된 것이든지 관계없이, 마음을 의지작용으로 움직이거나 자극하거나 초대하는 전부를 의미한다.” 에드워즈가 의지를 결정하는 도덕적 원인으로 일컫는 가장 강한 동기는, “지성의 최종 지시,” “가장 큰 선으로 보이는” 것, “마음에 전체로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Edwards, 『의지의 자유』, 217-221을 보라).

43 Edwards, 『의지의 자유』, 239. Edwards, 『의지의 자유』, 240: “도덕적 원인과 도덕적 결과가 확실하고 완전하게 연결되는.....이런 경우만을 ‘도덕적 필연성’이라고 일컫는다.”

44 Edwards, 『의지의 자유』, 239.

에드워즈에 따르면, 두 필연성의 차이는 원인과 결과의 성격이 다른데 있다. 다시 말해, 도덕적 필연성이 성립하는 원인과 결과는 도덕적 원인과 도덕적 결과이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필연성의 원인과 결과의 “연결의 성격”에는 차이가 없다.⁴⁶ 그래서 도덕적 원인은 자연적 원인만큼이나 해당 결과를 틀림없이 가져온다.⁴⁷ 게다가, 에드워즈는 자연적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자연적 필연성이 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와 자연법칙이 있는 것처럼, 의지의 행위에도 정해진 원리가 있어서 도덕적 필연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지작용 행위 또는 선택과 그 원인 사이에 있는 연결과 의존은 일정한 법칙을 따르지만 물질계에서만 식별되지 않고 명백하지 않다. 말하자면 선택은, 특히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에서 관찰되는 사물의 아주 명백한 법칙 및 질서와 다른 움직임과 행위의 새로운 원리다.⁴⁸

물질계의 자연법칙만큼이나 의지의 선택과 그 원인을 틀림없이 연결하는 법칙이 의지의 작용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어떤 법칙 또는 원리인가? 에드워즈가 제안하는 의지작용의 법칙은, 언제나 의지는 “지성의 최종 지시”를 따른다는 것이다.⁴⁹ 에드워즈에 따르면, 이 원리는 보편적이다.⁵⁰ “의지는 몇몇 의지의

45 본성적 필연성과 도덕적 필연성에 대한 간략한 정의로는, Willem J. van Asselt, J. M. Bac, Roelf T. te Velde, and Marinus Schouten, “Introduction,” in *Reformed Thought on Freedom: The Concept of Free Choice in the History of Early-Modern Reformed Theology*, ed. Willem J. van Asselt, trans. J. M. Bac, and Roelf T. te Veld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0), 39를 보라.

46 Edwards, 『의지의 자유』, 240.

47 Edwards, 『의지의 자유』, 239: “도덕적 필연성은 자연적 필연성만큼이나 절대적일 수 있다…… 도덕적인 결과는 그것의 도덕적 원인과 완전하게 연결될 수 있다.”

48 Edwards, 『의지의 자유』, 241.

49 Edwards, 『의지의 자유』, 226. Cf. Edwards, 『의지의 자유』, 320: “영혼은 현재 마음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곧 현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현재 마음의 시야 전체에서 고려할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에 의지를 갖는다.”

50 또한 에드워즈는 철학적 필연성을 “보편적 필연성”과 “특정적 필연성”으로 구별한다. 어떤 것의 존재를 긍정하는 명제의 주어와 술어가 어떤 경우든지 틀림없이 연결되는 경우 보편적으로 필연적이고, 어떤 것의 존재를 긍정하는 명제의 주어와 술어의 연결이 특정한 사물이나 시간에서 틀림없을 때, 바로 그 사물과 그 시간에는 특정적 필연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dwards, 『의지의 자유』, 236: “따라서 특정적 필연성이 있는 것은 적어도 특정한 사물이나 사물이나 시간에 있어서

행위에서만 아니라 선택하고 거부하는 모든 행위에서 가장 큰 선과 악에 대한 지성의 판단과 고려를 반드시 따르는 것이 필연적”이다.⁵¹ 에드워즈는 의지와 지성의 필연적인 연결을 말한다.⁵² 혹자가 평가하는 것처럼, 필연성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런 이해를 “물리적 필연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⁵³ 오히려 에드워즈의 이해에 상응하는 전통적인 개념은 합리적 필연성이다.

3. 합리적 필연성(rational necessity)⁵⁴

개혁파 정통주의는 자유의지의 “형식적 근거”가 “이성적 자발성”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합리적 필연성에 대한 이해는 특히나 중요하다.⁵⁵ 비록 에드워즈는 합리적 필연성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전통적 개혁주의의 합리적 필연성에 상응하는 내용을 주장한다. 개혁파 정통주의자인 투레틴의 정의에 따르면, 합리적 필연성이란 의지는 실천적 지성의 최종적인 판단을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필연성을 벗어나서 의지가 “악인 줄을 알면서도 악을 추구하고 선인 줄을 알면서도 선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부조리하다.⁵⁶ 합리

는 가장 보편적이고 절대적 필연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51 Edwards, 『의지의 자유』, 324.

52 Edwards, 『의지의 자유』, 327: “지성의 최종 지시와 의지작용 사이의 필연적인 연관성”은 “의지 작용이 필연적임을 증명하는 논거”가 된다.

53 Cf. Muller, “Jonathan Edwards and the Absence of Free Choice,” 15. 이후에 멀러는 에드워즈의 이해를 물리적 필연성으로 묘사한 자신의 주장만큼은 지나치다고 철회했다(Muller, “Jonathan Edwards and Francis Turretin,” 271). 물리적 필연성(physical necessity)이 강제의 필연성(necessity of coercion)과 종종 혼동되기도 하지만(cf. Asselt, et al., “Introduction,” 39), 일반적으로 물리적 필연성은 외적 원인에서 도출되는 필연성만을 가리키고 강제의 필연성은 행위자의 의지에 일치하지 않는 외적 원인에 의해서 부과되는 필연성을 가리킨다(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979-80을 보라).

54 합리적 필연성에 대한 좋은 설명으로, Michael Patrick Preciado..... 291을 보라.

55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984. 일반적으로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단순한(본성적) 자발성과 합리적 자발성을 구별했다. 본성적 자발성은 외적인 강제가 없는 내적인 행동 원리만으로 성립하는데 반해, 합리적 자발성은 외적인 강제의 배제뿐만 아니라, 의지가 지성의 판단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합리적인 내적 원리가 요구된다(Willem J. van Asselt, *Reformed Thought on Freedom*, 221-22).

56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980-81.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979: “실천적 지성의 판단에 의해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에 생겨나는 이성적 필연성이 있다. 이때에 의지는 그 필연성에 저항할 수 없다.” Cf.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985: “지성이 어느 쪽으로

적 필연성에서조차 자유로운 우리의 선택은, 프레임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 자신과도 독립된 선택이다.⁵⁷ 투레틴이 말하는 의지와 지성의 틀림없는 연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합리적 욕구인 의지가 반드시 따르는 것은 이론적이거나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실천적” 지성의 판단이다.⁵⁸ 의지는 상황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옳고 선한 것이 아니라, 해당 상황에서 자기에게 선하다고 판단한 것을 따른다.⁵⁹ 둘째로, 의지는 실천적 지성의 “최종적인” 판단을 따르지, 선택 당시 이전의 판단은 아무리 강해보일지라도 의지와 지성의 연결은 확실하지 않다.⁶⁰ 의지는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최선이라고 판단내린 것을 따른다.

에드워즈가 말하는 의지와 지성의 필연적인 연결에도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의지는 언제나 지성의 최종 지시를 따른다.”⁶¹ 먼저, 의지가 언제나 따르는 지성은 “단지 이성(reason)이나 판단(judgment)이라고 불리는 것만이 아니라 인식 능력 전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⁶² 물론 에드워즈의 이해에 객관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⁶³ 단순히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은 의지가 따라야 하는 지성의 최종 지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⁶⁴ 지성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할

항할지를 놓고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의지는 중립적이라는 것도 시인한다.”

57 Frame,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846.

58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983: “의지는 지성의 이론적 판단이나 실천적 지성의 절대적 판단에 반대할 수 있는데.....하지만 의지는 실천적 지성의 최종적인 판단에는 결코 반대할 수 없다.”

59 투레틴의 최초 타락을 실례로 든다.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983: 아담의 지성은 하나님의 금령을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최초의 죄에서..... 그의 의지는 지성의 그러한 최초의 절대적인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

60 의지는 실천적 지성의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단”은 거부할 수 없지만, “최초의 확정적 판단”은 반대할 수 있는데, 투레틴은 실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언급한다.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983을 보라.

61 Edwards, 『의지의 자유』, 226.

62 Edwards, 『의지의 자유』, 226-27.

63 Edwards, 『의지의 자유』, 222-23: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싶게 만드는 한 가지는 마음에 보이는 그 대상의 성격과 수반상황이다.” 에드워즈는 객관적인 고려사항으로서 대상 자체의 성격, 대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의 필수적인 수반물, 그리고 즐거움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상의 거리를 언급한다.

수 있지만, 결국 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선으로 보이는” 것,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가장 선해 보이는” 것이다.⁶⁵ 둘째, 의지가 반드시 따르는 지성의 판단은 에드워즈에게 있어서도 최종적인 판단이다. 여기서 최종적이라는 것은 단지 전체를 고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 당시 “마음의 현재 인식과 이해나 관념에 아무튼 속하는 모든 것을 합쳐서 마음에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⁶⁶ 이와 같이 에드워즈도 지성의 이런 실천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을 조건으로 하는 의지작용의 합리적 필연성 개념을 주장한다.

4. 무오의 필연성(necessity of infallibility)

고전적인 개혁주의는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행위와 의지작용도 무오하게 예지하신다는 것을 긍정한다.⁶⁷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할 모든 것을 틀림없이 예지하신

64 Edwards, 『의지의 자유』, 227: “이성의 지시는 의지의 양팔 저울에 놓여 의지를 움직이고 자극하는 복합적인 영향에 관여하는 한 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Cf. Edwards, 『의지의 자유』, 225: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이성을 따르는 것이 마음에 가장 좋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욕구를 따르는 것이 마음에 가장 좋다.”

65 Edwards, 『의지의 자유』, 222.

66 Edwards, 『의지의 자유』, 227. Edwards, 『의지의 자유』, 224-25: “만약 장래 즐거움들이 가운데 어떤 즐거움은 더 큰 즐거움으로 다른 즐거움은 더 작은 즐거움으로 판단되고, 또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는 더 강한 의식과 더 생생한 관념이 있고 다른 즐거움에 대해서는 더 약하고 덜 생생한 관념이 있고, 어떤 즐거움은 다른 즐거움보다 확실성 또는 존재가능성이 마음에 더 커 보이고, 어떤 점에서는 마음에 가장 좋아 보이는 즐거움이 또 다른 점에서는 가장 안 좋아 보인다)의 향유가 여러 가지 함께 제시되어 마음에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쟁할 때, 이 경우에 여타 모든 것이 동등하다면, 선택에 제안된 대상의 호감도는 판단되는 선의 정도, 그 선이 존재할 가능성 또는 확실성의 정도, 그리고 그 선을 보고 인식하는 정도, 또는 그 선에 대해서 마음이 갖는 관념의 생생함의 정도의 어떤 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67 개혁파 정통주의에 따르면, 의지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참된 지식의 대상이다.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29: “하나님의 지식의 대상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극히 완전하게 알고.....가능한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보편적인 것이든 특수한 것이든, 시간적으로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필연적인 것이든 우연한 것이든 모든 것을 안다.”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32: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채로 그의 눈에 드러난다”.....‘모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자발적인 행위들도 포함되고, 현재 존재하는 일들만이 아니라 미래에 존재할 일들도 포함된다.”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39: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모든 일만이 아니라 그것들의 모든 결합과 연결 관계를 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이다.”

데서 비롯되는 모든 결과의 확실성은 전통적으로 불오의 필연성⁶⁸ 또는 무오의 필연성 이라고 흔히 일컬어졌다.⁶⁹ 에드워즈는 참된 지식에 대한 개념 규정과⁷⁰ 필연적인 것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것은 필연적이라는 자신의 필연성 개념을 활용하여,⁷¹ 무오의 필연성에 상응하는 내용을 주장한다. 그는 의지의 행위에 대한 무오한 예지에서⁷² 의지의 행위가 예지된 그대로 틀림없이 장차 존재하는 “확실한 장래”(certain futurity)를 도출한다.⁷³ “따라서 장래 의지작용들에 대한 어떤 틀림없는 지식(즉 예지)이 있다면, 장래 의지작용들은 필연적일 것임이 명백하다. 다시 말해서, 이 장래 의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⁷⁴

전통적으로 무오의 필연성은 사태의 이차적 원인에 작용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식적 필연성”으로 간주되었다.⁷⁵ 왜냐하면 무오의 필연성을 초래하는 신적 예지가 이차적 원인의 성격을 좌우하지 않고, 신적 작정에 의해 정해진 이차적 원인과 작용을 단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⁷⁶ 비록 에드워즈

68 이성호, “죄의 허용(permission)과 하나님의 의지(will)에 대한 윌리엄 퍼킨스의 개혁신학적 변증”, 260.

69 김찬영, “우연과 필연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이해 비교”, 51n26. 하나님의 예지와 관련된 것이 무오의 필연성이라면,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는 결과의 불변성은 흔히 불변의 필연성이라고 전통적으로 일컬어져왔다.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작정하면 그 사건은 그 자체로 필연적이지 않을지라도 틀림없이 발생한다는 것을 긍정해왔다.

70 Edwards, 『의지의 자유』, 384: “확실한 지식은 모두, 그것이 예지든 사후 지식이든 동시적 지식이든, 인식된 그것이 현재 필연적임을(어떻게 필연적이 되든), 또는 틀림없이 인식된 그것이 현재 참이 아니기 불가능함을 증명한다.” Edwards, 『의지의 자유』, 385: “하나님의 확실한 예지란, 그 가선의 장래 존재를 긍정하는 명제에서 주어와 술어 사이의 확고하고 분리할 수 없는 연결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다.”

71 Edwards, 『의지의 자유』, 375: “만약 도덕적 행위자의 의지작용들이 장래에 존재할 것에 대한 완전하고 틀림없고 확실한 예지가 존재한다면, 의지작용들의 장래 존재와 그 예지 사이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틀림없고 확실한 연결이 있을 것이다.”

72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합리적 존재의 의지의 행위들을 무오하게 예지하신다는 것을 도덕적 행위자의 자유로운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성경의 확실한 예언과 예고에 기초해서 논증한다(Edwards, 『의지의 자유』, 352-73; cf.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32-33).

73 Edwards, 『의지의 자유』, 385

74 Edwards, 『의지의 자유』, 376. Edwards, 『의지의 자유』, 388: “만약 하나님의 지식이 틀림없다면, 기록된 예언에 있는 장래 의지 행위에 대한 진술도 틀림없을 것이다.....이 말은, 그 장래 의지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말과 똑같다.”

75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245

76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34: “신적 지식의 주된 토대는.....확실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로

가 적어도 신적 예지가 초래하는 필연성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이차적 원인의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에드워즈는 전통적인 이해보다 단순한 원인론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에드워즈도 신적 예지를 인식된 장래 사건에 영향을 미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만드는 작용인으로서 간주하지 않는다.⁷⁷ 단지 신적 예지가 장래의 “명증성”을 보거나,⁷⁸ “장래 존재를 긍정하는 명제의 참됨”을 앎으로써,⁷⁹ 신적 예지와 예지된 모든 것 사이에 틀림없는 연결이 존재하고, 따라서 결과와 연결의 필연성이 발생한다. 신적 예지와 예지된 것의 연결의 필연성은 하나님이 장래 명제에 진리값을 틀림없이 부과한다는 것을 가리키지, 이 진리값이 실현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는다.⁸⁰

그런데 투레틴은 신적으로 예지되어 무오의 필연성을 갖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연한 일”도 있다고 주장하지만,⁸¹ 에드워즈는 무오한 예지로 말미암는 필연성과 우연의 언어를 대립시킨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로 있는 그대로 아시기 때문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연적인 것은 사실 결코 없다.”⁸²

확정하는 미래화의 상태로 옮겨 놓는 ‘작정’이다.....하나님은 자신의 작정 안에서 그 일들을 단지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로만이 아니라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우연한 일로도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오의 필연성은 작정으로 인한 불변의 필연성을 전제한다. 무오의 필연성과 불변의 필연성의 관계에 대한 에드워즈의 논의로는, Edwards, 『의지의 자유』, 380-83, 390-91을 보라.

77 Edwards, 『의지의 자유』, 383: “설사 어떤 사건이 장래 존재한다는 확실한 예지가 애초에 그 사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확실한 예지는 그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이 불가능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든)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고, 아니 틀림없이 증명한다.”

78 Edwards, 『의지의 자유』, 376: “명증성(evidence) 없이는 아무것도 그 어떤 지성에도 확실하게 알려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79 Edwards, 『의지의 자유』, 379.

80 Cf. Preciado, “The Compatibility of Guidance Control and Reformed Theology,” 173.

81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34-35.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495: “작정의 필연성과 불변성은 일차적 원인과 관련해서 우연성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까닭에,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차적 원인들과 관련해서는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는다.”

82 Edwards, 『의지의 자유』, 387.

III. 우연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해

1. 조건적 우연과 무조건적 우연

전통적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예지나 인간의 자유와 일치하는 필연성과 양립하는 우연의 언어를 긍정해왔다.⁸³ 반면, 에드워즈는 자유로운 의지 행위에 대한 무오한 예지는 “모든 필연성이 배제된 그런 우연성과 모순”된다고 말한다.⁸⁴ 에드워즈는 어떤 것이 우연하다고 할 때, 우연한 것이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정의하는 반면, 일반적으로 이전의 개혁주의 전통은 우연한 것들을 “달리 될 수 있었던 것들”로서 정의해왔다.⁸⁵ 멀러의 평가에 따르면, 우연성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해는 “사실적인 또는 진짜 우연”을 부정한다고 결론내리고,⁸⁶ 전통적인 개혁주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고 한다.⁸⁷ 멀러는 에드워즈가 우연에 대한 좁은 정의와 일차원적인 인과론에 의해서,⁸⁸ 개혁주의의 “우연한 세계 질서”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를 떠나서 모든 것을 필연으로 환원했다고 평가한다.⁸⁹ 또한 필립 피스크(Philip John Fisk)도 에드워즈가 사태가 달리

83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35: “모든 일은.....무오성의 필연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지만, 원인에 따른 필연성과 절대적인 필연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인 일들과 우연한 일들 간의 이런 구별은 여전히 항상 존재한다.”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494: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은 필연이고 어떤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이다.”

84 Edwards, 『의지의 자유』, 390.

85 Muller, “Jonathan Edwards and the Absence of Free Choice,” 12. 우연성에 대한 용어 설명으로는,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93-94를, 더 상세한 설명으로는, Muller, *Divine Will and Human Choice*, 48-50을 보라. Cf. John Calvin,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 박건택 편역, 『칼뱅 작품 선집』 제7권(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1), 217n459: “우연이라 불리는 것, 즉 사태가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될 수 있는 것들(F).”

86 Muller, “Contingency, Necessity, and Certainty in Jonathan Edwards' Freedom of Will,” 275.

87 Muller, “Jonathan Edwards and Francis Turretin,” 274: “[에드워즈]는 우연에 대한 전통적 정의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이 논증은 개혁파 정통주의와 분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88 Muller, “Jonathan Edwards and Francis Turretin,” 275: 에드워즈에게 있는 것은 “우연성 [또는 가설적 필연성]이 빠진, 끊을 수 없는 단일 수준의 인과 고리”이다.

될 수 있다는 고전적 의미의 우연을 “선협적으로 배제”하고, 고전적인 개혁주의 전통과는 다른 “필연주의적인 세계관”을 지향한다고 판단한다.⁹⁰ 멀러는 에드워즈가 우연을 인식론적 무지로 한정하고, 인식론적 무지와 구별되는 참된 우연은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연”이나 “사태가 달리 될 수 있다”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개혁파 정통주의에서 긍정하는 우연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에드워즈가 부정하는 우연은 어떤 것인가? 이런 말들은 그 자체로는 애매모호하고,⁹¹ 조건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무조건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⁹²

에드워즈가 우연을 어떤 의미로 부정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에드워즈가 “우연”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드워즈는 “우연”의 상이한 두 용법을 구분한다. 하나는 사태의 원인이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포착할 수 없는 경우다.

어떤 것과 그것의 원인 또는 선행하는 것과의 관계가 사물의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발견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과 그것의 원인 또는 선행하는 것과의 관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그것은 우연적이다.....그리고 우리가 당사자로서 또는 계기로서 관여하는 어떤 것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의도를 벗어나서 발생할 때, 그것은 특히 우리에게 있어 우연적이라고 말해진다.⁹³

89 Muller, “Jonathan Edwards and the Absence of Free Choice,” 15. 이와 유사하게 존 페스코는 멀러의 에드워즈 분석에 동의하고, 우연성을 부정하는 에드워즈의 신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에 대한 현대의 과도한 결정론적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Fesko,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는 이 신앙고백이 긍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우발성(contingency) 개념을 부인한 조나단 에드워즈(1703-1758)의 신학이다.”

90 Fisk, *Jonathan Edwards's Turn*, 340.

91 Preciado, “The Compatibility of Guidance Control and Reformed Theology,” 212.

92 Helm, “Jonathan Edwards and the Parting of Ways,” 59. Cf. Helm, “Turretin and Edwards Once More,” 289.

93 Edwards, 『의지의 자유』, 237. Edwards, 『의지의 자유』, 241: “이에 반해 (정해진 법칙에 따른 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칙과 관계를 우리가 쉽사리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방식을 다른 명칭으로 표현한다.....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지 않고 식별되지 않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는 방식을..... ‘우연’, ‘우발’, ‘우유’ 따위의 명칭으로

우리의 인식론적 한계에 의해서 규정된 우연의 의미와 구분되는 또 다른 용법은 참된 인과관계의 부재를 가리키는 경우이다.

그러나 ‘우연적인’이라는 말도 아주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즉 우리가 일련의 것들과의 전후 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해당 사건을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과 고정적이고 확실한 관계에 있는 선행하는 근거나 이유가 전적으로 없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⁹⁴

에드워즈는 전자의 우연을 긍정하고 후자의 우연은 부정한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전자의 우연은 우리의 인식 조건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사건의 주체가 이성적 존재이냐 아니냐 같은 원인의 성격과는 상관없다.⁹⁵ 반면 후자의 우연은 어떤 필연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것으로서 합리적 필연성이나 무오의 필연성과도 양립할 수 없다.⁹⁶

무조건적인 또는 절대적인 우연에 대한 거부는 고전적 개혁신학의 공통적인 목소리였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 같은 1, 2세대 종교개혁자들도 우연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지 않았다.⁹⁷ 이후 개혁파 정통주의도 우연을 제한 없이 긍정하지 않았다. 비록

일컫는다.”

94 Edwards, 『의지의 자유』, 237.

95 Edwards, 『의지의 자유』, 319: “결론적으로, 모든 결과는 원인과, 즉 결과가 존재하는 참된 근거 및 이유인 것과 필연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96 에드워즈는 『의지의 자유』 4부 9절에서는 합리적 필연성과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무조건적 우연성의 모순을, 4부 12절에서는 무오의 필연성과의 모순을 논증한다.

97 루터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이나 무오한 예지와 일치하지 않는 우연을 거부한다 (Martin Luther, *The Bondage of the Will*, trans. J. I. Packer and O. R. Johnston [Grand Rapids: Baker, 2009], 80-81). 그리고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상의 우연한 것들이 긍정되지만, “인간의 이해의 관점에서” 긍정된 우연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뜻에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무조건적이지 않다 (Calvin,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 217-18). 우연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이해에 대해서는, 김찬영, “우연과 필연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이해 비교”, 49-50, 58-60을 보라. Cf. 김재용, “우연과 필연에 대한 칼빈의 인식”, 『갱신과 부흥』 30 (2022), 125-56. 칼빈이 실제적 우연을 부정한다는 김재용의 독법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런 읽기에 따르면 우연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해는 칼빈의 견해와 아주 유사하다.

투레틴이 에드워즈와 달리, 자유로운 의지의 행위를 “우연한 일들”의 범주에 포함시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지만, 에드워즈가 모든 필연성을 배제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우연을 거부하는 것처럼, 투레틴도 신적 예지와 충돌하는 소키누스주의적인 우연을 거부하고, 신적 작정에 의한 불변의 필연성이나 신적 예지로 인한 무오의 필연성과 일치하는 우연만을 긍정한다.

소키누스주의자들은 자유의지를 모든 필연성, 심지어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 부여되는 필연성에서도 자유롭게 해서 자유의지의 종립성을 좀 더 쉽게 확보하기 위해, 미래의 우연한 일들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게서 박탈하려고 애쓴다.....반면에 정통 진영에서는 미래의 우연한 일들은 하나님의 무오한 지식에 속한다고 주장한다.⁹⁸

투레틴은 무조건적으로 우연한 것, 즉 “모든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비확정적인”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나 지식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거부한다.⁹⁹ 그러나 투레틴은 단지 우리의 인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갖되 우연한 원인을 갖는 것을 긍정한다. 우연한 원인이란, 해당 결과를 달리 만들어 낼 수 있는 원인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이차적 원인들이 있는데, 해당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만들어 내지 않을 수도 있”는 원인들이 있다.¹⁰⁰ 투레틴에 따르면, 세상의 우연한 것들은 단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데 그치는 주관적 조건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격이 다른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¹⁰¹ 이에 반해 에드워즈는 2차 원인의 다른 성격에 따른 우연의 구별을 언급하지 않는다.¹⁰²

그러나 우연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이런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는

⁹⁸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30-31.

⁹⁹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34.

¹⁰⁰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31.

¹⁰¹ 우연성이 투레틴에게 단지 인식론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physically)”라는 그의 수식어에서도 드러난다.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31: “**물리적으로** 우연한 이차적 원인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무오한 지식에 속하고.....”(강요는 첨가한 것).

¹⁰² Muller, “Contingency, Necessity, and Certainty in Jonathan Edwards’ Freedom of Will,” 257.

이차적 원인들의 성격과 작용 원리를 선택이 결여된 자연적인 것(또는 본성적인 것)과 그렇지 않는 도덕적인 것으로 구별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다. 비록 에드워즈에게 동일한 원인에도 불구하고 달리 될 수 있었다는 의미의 우연의 용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는 의지의 행위가 선택적 행위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¹⁰³ 이 선택은 사태를 “변경”시키며,¹⁰⁴ 결과를 달리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¹⁰⁵ 게다가, 양자는 도덕적 원인이든 우연적 원인이든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예지와 실천적 지성의 최종 판단과는 달리 될 수 없다는데 동의한다.

2. 세상의 일차적 우연성

전통적 개혁주의는 이차 원인에 있어서만 아니라 일차 원인과 관련해서도 우연의 언어를 사용해왔다. 투레틴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달리 세상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우연하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연한 것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⁰⁶ 최고선이신 하나님은 “필연적인 선”으로서 자기 자신을 원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파생적이고 이차적인 선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¹⁰⁷ 따라서 “어떤 창조된 것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필연적이지 않고 우연적”이다.¹⁰⁸

103 Edwards, 『의지의 자유』, 211-12: “즉 의지의 행위는 선택 행위 또는 선택과 같은 것이다..... 의지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의 행위를 뭐라 부르든지, 즉 선택, 거절, 승인, 불허, 애호, 혐오, 환영, 거부, 결정, 지향, 끌림, 금지 내킵 또는 꺼림, 기뻐함 또는 기뻐하지 않음이라 부르든지, 이 모두가 일종의 선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영혼은 의지적으로 행할 때, 언제나 선택적으로 행한다.”

104 Edwards, 『의지의 자유』, 241.

105 Edwards, 『의지의 자유』, 242: “선택은 사건의 진행을 홀로 내버려 두면, 즉 외물들 안에 있는 움직임의 법칙을 따르도록 내버려두면, 되어 갈 진행과 다른 진행이 되게 만들기도 한다.”

106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31.

107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46-47.

108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47.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48: “그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 없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를 묘사하는 데 우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연에 대한 에드워즈의 정의를 고려할 때 당연해 보인다. 하나님의 창조 의지를 계획이나 목적 없는 변덕으로 간주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없이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불완전함과 천함”을 돌리는 신성모독일 것이다.¹⁰⁹ 물론 투레틴이 말한 창조의 근본적인 우연성은 하나님의 창조 의지가 지성과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니었다.¹¹⁰ 개혁파 정통주의는 창조의 일차적 우연성을 통해서, 자신의 완전함에 다른 어떤 것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충족성을 분명히 한다. 그렇다면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왜 다른 존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선함을 증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피조물을 자유롭게 창조하길 원하셨다.¹¹¹

비록 에드워즈가 주권적인 신적 창조를 우연으로 묘사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세상의 일차적 우연성에 대한 개혁파 정통주의 이해가 전제하는 성경적인 근본 사상, 즉, 하나님은 완전히 자충족적이시고 그 존재와 속성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반면, 창조 행위와 피조물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필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결정에 의존한다는 고전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이런 이해는 에드워즈가 스코틀랜드 철학자 앤드류 백스터(Andrew Baxter, 1686-1750)의 『이성과 철학적 원리로 영혼의 불멸성이 밝혀지는 인간 영혼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인용한 데서 드러난다.

무한히 지혜롭고 선한 존재는 가장 완전한 자유를 갖고도 지혜로움과 선함에 반하여 행하기로 선택할 수 없다.....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바로 그런 존재들을 애초에 창조하셔야 했다거나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이든 창조하셔야 했다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는 전혀 필연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9 Edwards, 『의지의 자유』, 540-41.

110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46: “하나님의 의지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지성을 따”른다.

111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48. 이런 구별은 전통적으로 절대적 필연성과 가정적 필연성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348: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은 절대적인 필연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전제에 따라서[즉, 가정적 필연성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만으로 무한히 행복하시고 완전히 충분하시기 때문이다.¹¹²

그런데 에드워즈가 말하는 창조의 이런 자유로운 신적 결정에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자유도 포함하는가? 에드워즈에 따르면, 신적 충만함의 “발산”과¹¹³ “유출”(emanation)은 하나님의 본성적 “성향”이다.¹¹⁴ 그래서 “우리는 그의 본성의 원래 속성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충만의 유출을 향한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성향이 하나님을 자극하여 세계를 창조하게 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¹¹⁵ 그래서 존 쿠퍼는 창조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런 유출설적 표현을 고려해서, 적어도 세상을 창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에드워즈의 하나님에게는 본성상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¹¹⁶ 그럼에도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창조에 대한 걱정과 피조물에 대한 예지를 그 자체로 필연적인 것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¹¹⁷

IV. 개혁파 양립주의자 에드워즈

112 Edwards, 『의지의 자유』, 537n2.

113 Jonathan Edwards, “Concerning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8, *Ethical Writings*, ed. Paul Rams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433, 447.

114 Edwards, “Concerning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 435.

115 Edwards, “Concerning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 435 in John W. Cooper, *Panentheism: the Other God of the Philosophers*, 김찬영 옮김, 『철학자들의 신과 성서의 하나님: 신과 세계의 관계, 그 치열한 논쟁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125에서 재인용(강조는 에드워즈의 것).

116 Cooper, 『철학자들의 신과 성서의 하나님』, 126: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재권(주권)은 세계를 창조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선택을 포함하지 않는다.” 존 쿠퍼의 에드워즈를 공정히 다루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가 창조를 “신성한 본성의 불가피한/필연적인 유출로 간주한다”(Cooper, 『철학자들의 신과 성서의 하나님』, 125)는 평가에 대해서는 “신성한 본성의 자발적인 유출”이라는 표현을 대안으로 제안하고 싶다.

117 에드워즈는 신적 예지의 필연성을 이미 존재함으로써 존재가 확정되어 현재 필연적인 것의 범주에 넣는다. Edwards, 『의지의 자유』, 375: “예지란 정의상 이미 존재하는 것이거나 오래전에 존재한 것이고, 따라서 그 존재는 현재 필연적일 것이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지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이 그 자체로는 필연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지하신 것과 결코 달리 될 수 없다는 것을 긍정한다. 역사적으로 여러 유형의 결정론이 있지만, 로버트 케인(Robert Kane)이 진술한 결정론의 핵심 개념, 즉, “만약 결정하는 이전 조건들이 획득되면, 결정된 사건이 발생할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정의에 따르면,¹¹⁸ 개혁주의는 결정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적 작정과 예지가 “획득되면,” 작정되고 예지된 사건은 그대로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신학적 결정론이고,¹¹⁹ 이런 신학적 결정론은 전통적으로 개혁주의에서 불변의 필연성(작정)이나 무오의 필연성(예지)과 같은 필연성의 언어로 표현되었다.¹²⁰ 하나님이 작정하고 미리 아시는 사건은 그 자체로는 필연성을 갖지 않지만, 작정 및 예지 그리고 작정되고 예지된 사건 사이의 필연적 함의관계로 인해서 그 사건은 확실하게 발생한다.¹²¹ 개혁과 정통주의에서는 그 자체로 필연적이지 않지만 함의의 필연성에 의해서 필연성을 갖게 된 것과 원인의 성격에 따라서 필연적인 것을 NC와 NT로 구별해왔다.

에드워즈는 NC와 NT의 구별이라는 오래된 전통적인 구별을 사용하지 않지만, 전통적인 용어가 전달하는 내용은 에드워즈에게 없지 않다. 에드워즈의

118 Robert Kane,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Free Will*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5), 5-6: “자연법칙과 더불어 선행하는 원인이나 운명의 작정이나 하나님의 예정과 같은 이전에 획득되는 조건들이 (선택이나 행동 같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충분조건이 될 때, 그 사건은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만약 결정하는 이전 조건들이 획득되면, 결정된 사건이 발생할 것임에 틀림없다(강조는 케인의 것). Cf. Frame,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844: “결정론은 (인간의 행동을 포함해서) 모든 사건이 그 자체 외의 충분한 원인이 있다는 견해다.”

119 Robert Audi, *The Cambridge Dictionary of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6) 198: 신학적 결정론은 “하나님이 발생하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하나님이 아는 사건들의 진행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통 개혁신학을 대변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신학적 결정론에 대한 뛰어난 논의로는, Preciado, “The Compatibility of Guidance Control and Reformed Theology,” 215-23을 보라.

120 Turretin, 『변증신학 강요』, 1:493: “작정은 장래의 일들을 필연적으로 만드는가? 우리는 이를 긍정한다.”

121 함의하는 것인 작정과 예지가 “획득되면” 함의된 것인 작정되고 예지된 것은 그 자체로는 필연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작정과 예지가 획득되면, 작정되고 예지된 것이 획득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와 연결)의 필연성”은 선행하는 필연적인 것과의 틀림없는 연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필연적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에드워즈는 그 자체로 필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과 연결되어 필연적인 것을 구별하고, 후자를 결과와 연결의 필연성이라고 일컫는다. 이전의 개혁주의가 틀림없는 함의 관계를 발견한 곳에서 에드워즈는 고정적이고 확실한 연결 관계를 발견한다. 그리고 결과와 연결의 필연성이 발생하는 연결의 성격이 꼭 작용인일 필요는 없다. 신적 예지와 예지된 것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를 함의로 표현하든지 연결로 표현하든지 상관없이 예지가 획득되면 예지된 것은 틀림없이 발생한다. 전통적인 NC와 에드워즈의 결과와 연결의 필연성은 둘 다 그 자체로 필연적이지 않지만 다른 것과의 틀림없는 (함의나 연결) 관계를 통해서 해당 사건은 달리 될 수 없음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에 대한 고전적인 개혁주의와 에드워즈의 견해를 양립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정당한가? 멀리에 따르면, 양립주의라는 용어는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비록 전형적인 양립주의는 에드워즈의 견해를 요약하기에는 적절할지라도, 전통적 개혁주의의 이해를 포착하는 용어로는 부적절하다고 한다.¹²² 양립주의는 일반적으로 홉스식의 양립주의를 말하고, 이런 전형적인 양립주의에서는 자유로운 행위자는 의지가 자발적일지라도 “의지를 달리 가질 수 없”는 반면,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의지를 달리 갖고 달리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의 본질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¹²³ 우선 개혁파 정통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에드워즈도 양립주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결정론과 도덕적 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가 형이상학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함께 긍정한다는 양립주의의 일반적인 정의를 고려할 때, 용어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양립주의의 적인 개념과 기획이 투레틴과 에드워즈에게 존재한다.¹²⁴ 게다가 투레틴과 에드워즈의 양립주의 둘 다, 의지는 합리적 욕구로서 합리적 필연성을 갖는다고

122 Muller, “Jonathan Edwards and Francis Turretin,” 283: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양립주의 같은 용어들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그 주제[자유와 결정]에 대한 근대 초기 개혁 사상의 경우에 사실 맞지 않다.”

123 Muller, “Jonathan Edwards and Francis Turretin,” 283-84.

124 이후에 멀러는 개혁파 정통주의도 양립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개혁파 정통주의의 양립주의와 에드워즈의 양립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Muller, “Jonathan Edwards and Francis Turretin,” 284).

주장한다. 양자 모두는 지성의 최종 지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지가 달리 되는 것을 허용하지만, 지성의 최종 지시가 있음에도 의지가 달리 결정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우연성은 둘 다 허용하지 않는다. 비록 에드워즈가 전통적인 용어와 차이가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의 유출설적인 언어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을 신적 자유에 대한 투레틴의 강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필연성과 우연성의 언어에 대한 에드워즈의 실제 용법을 고려할 때, 의지의 자유에 대한 에드워즈의 견해는 개혁파 양립주의로 정당하게 일컬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sselt, W. J. van, J. M. Bac, and R. T. Te Velde, eds. *Reformed Thought on Freedom: the Concept of Free Choice in Early Modern Reforme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0.
- Audi, Robert. *The Cambridge Dictionary of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6.
- Calvin, John. *The Bondage and Liberation of the Will: A Defence of the Orthodox Doctrine of Human Choice against Pighius*. Edited by A. N. S. Lane. Translated by G. I. Davies. Grand Rapids: Baker, 1996.
- _____.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 박건택 편역. 『칼뱅 작품 선집』 제7권.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1.
- Edwards, Jonatha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8. *Ethical Writings*. Edited by Paul Ramse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_____. *Freedom of the Will*. 김찬영 옮김. 『의지의 자유』.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6.
- Fesko, John V.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신윤수 옮김. 『역사적, 신학적 맥락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 Fisk, Philip John. *Jonathan Edwards's Turn from the Classic-Reformed Tradition of Freedom of the Will*.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6.
- Frame, John. *Systematic Theology*. 김진운 옮김.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 Helm, Paul. “Jonathan Edwards and the Parting of Ways.” *Jonathan Edwards Studies* 4, no. 1 (2014), 42-60.
- _____. “Turretin and Edwards Once More.” *Jonathan Edwards Studies* 4, no. 3 (2014), 286-96.
- _____. *Reforming Free Will: a Conversation on the History of Reformed Views on Compatibilism(1500-1800)*. Great Britain: Mentor, 2020.
- Kane, Robert.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Free Will*. Oxford University

- Press, Oxford, 2005.
- Luther, Martin. *The Bondage of the Will*. Translated by J. I. Packer and O. R. Johnston. Grand Rapids: Baker, 2009.
- Muller, Richard A. "Jonathan Edwards and the Absence of Free Choice: A Parting of Ways in the Reformed Tradition." *Jonathan Edwards Studies* 1, no. 1 (2011), 3-22.
- _____. "Jonathan Edwards and Francis Turretin on Necessity, Contingency, and Freedom of Will: in Response to Paul Helm." *Jonathan Edwards Studies* 4, no. 3 (2014), 266-85.
- _____.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Drawn Principally from Protestant Scholastic Theology*. 2nd ed. Grand Rapids: Baker, 2017.
- _____. *Divine Will and Human Choice: Freedom, Contingency, and Necessity in Early Modern Reformed Thought*. Grand Rapids, Mich.: Baker, 2017.
- _____. *Grace and Freedom: William Perkins and the Early Modern Reformed Understanding of Free Choice and Divine Gr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 _____. *Providence, Freedom, and the Will in Early Modern Reformed Theology*.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22.
- Preciado, Michael Patrick. "The Compatibility of Guidance Control and Reformed Theolog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berdeen, 2017.
- Turretin, Francis.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박문재, 한병수 옮김, 『변증신학 강요』 vol. 1.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 Warfield, Benjamin B. *Studies in The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2. Reprint, 2003.
- 권경철.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대한 프랑수아 투레티니(1623-1687)의 견해: 투레티니와 레이테커의 견해에 나타난 양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26 (2020), 143-80.

김재용. “우연과 필연에 대한 칼빈의 인식.” 『갱신과 부흥』 30 (2022), 125-56.

김찬영. “우연과 필연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이해 비교.” 『조직신학 연구』 34 (2020), 44-70.

이성호. “죄의 허용(permission)과 하나님의 의지(will)에 대한 윌리엄 퍼킨스의 개혁신학적 변증.” 『갱신과 부흥』 25 (2020), 241-68.

[Abstract]

Jonathan Edwards' Reformed Compatibilism : His Understanding of Necessity and Contingency

Chan Young Kim
(Deash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ystematic Theology)

It is not doubtful that Jonathan Edwards is the outstanding philosopher and theologian of America. He is commonly regarded as New England's premier Reformed Pastor. But There have been several dissenting voices in the scholarships on Edwards as to whether his views of freedom of the will are classic Reformed doctrine or not, although he saw his theory of freedom of the will as common Calvinistic doctrine. While there are scholars that esteem Edwards' understanding of the will as standard Calvinism, some studies maintain that his notion of freedom of the will is a form of philosophical determinism and departs from the older Reformed tradition. The latter argument is allegedly based on the judgement that Edwards' understanding of necessity and contingency has been changed from classic Reformed thought.

This essay compares their views and languages of necessity and contingency in the theologies of Edwards and Reformed orthodox theologian Francis Turretin. Although Edwards does not use the terms "necessity" and "contingency" in the same way of the Turretin, he distinguish between types of necessity, especially natural necessity and moral necessity. In addition, both Turretin and Edwards certainly deny absolute contingency incompatible with the divine foreknowledge and decree (perfectly consistent with

certain theological determinism). Both fully agree that nothing including freedom of the will happens but by the divine will and knowledge. Edwards' views as much as Turretin's views can be called as Reformed compatibilism.

Key Words: Jonathan Edwards, Francis Turretin, Freedom of the Will, Necessity, Contingency, Compatibilism

